박성일 완주군수, 현장행정 본격화

운주·화산·동상권역 현장심층토론회 주관
운주 말골재 터널화 등 현안사업 집중 점검

박성일 완주군수가 운주, 화산, 동상권역 현장행정을 시작으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후반기 업무 챙기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화산면 사무소에서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의 주요 현안 및 쟁점사업 점검을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 주재로 운주면장, 화산면장, 동상면장과 군청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높은 현장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국도 17호선 운주 말골재 터널화 사업의 내년도 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이 집중 논의 됐다.

그간 운주면은 전북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천과 운주를 가로막는 말골재 인해 소속은 전북권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충남권에 예속돼 주민들간에도 정체성 혼란까지 야기하며, 말골재터널화사업은 운주면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 등 전북과 완주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다.

이에 박 군수는 취임초부터 말골재 터널공사 추진을 위해 국도 17호선 위험구간 시설개량사업으로 전략을 세워 국비반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 단계 심의중에 있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해 입체적 총력 대응 활동을 강력 주문했다.

이어 화산면 현안사업 점검시에는 말산업특구 육성 전략으로 공공승마체험장 조성과 이와 연계된 경천저수지 승마길 조성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다.

특히 공공승마체험장과 화산한우, 경천저수지 등 지역자원과 연계된 시너지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토론됐다.

또한 동상면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진행상황과 최근 국비가 확보되어 내년도부터 추진이 확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주민 현안사업들도 논의 되었다.

이외에도 대둔산 사계절 명소화 전략, 운주 실내게이트볼장.자치센터, 화산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곶감건조기술 개선 정립 방안 등 57건의 현안사업들이 현장에서 집중 점검되었다.

박 군수는 "여름철 대표 행락지인 운주, 동상 계곡 일원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공중화장실 등 위생상태 점검 등을 통해 완주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작은 불편함도 없이 쉬었다 갈수 있도록 다시 찾고싶은 완주 만들기에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2015 전국 국산마 승마대회 경기 모습.

장수서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열린다

23일부터 장애물·유소년 복합마술 등 치러져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가 장수승마장(장수군 천천면 소재)에서 열린다.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장애물, 유소년 복합마술 및 국내승용마경기로 치러진다. 장수승마장은 부지면적 165,314㎡에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238칸의 마방과 888석의 관람석이 갖춰져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춘계·추계 전국승마대회, 전국국산마 승마대회 등 각종 국내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장수승마장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장수군이 말의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회유치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엘리트 승마와 대중 승마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내륙 최고의 말의 메카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 세계 태권도인들 화합의 장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무주 태권도원서 열려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식에서 무주 학생태권도시범단 공연 모습.

세계 태권도인의 꿈이 있는 EXPO,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식이 지난 16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막식에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전라북도의회 황현 의장, 무주군 황정수 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도의회 백경태의원 안호영,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와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태권도연맹 이대순 명예부총재, 국기원 오현득 원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 전북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을 비롯한 전 세계 34개국에서 찾은 2천 3백 여 명의 선수단과 사범, 심판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무주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정수 군수는 "올해로 10회째가 되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이자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인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4일 무주에 들어와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15일부터 합동훈련과 태권도세미나, A매치 태권도대회, 겨루기와 품새 태권도경연대회 등에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시범초청 및 실버초청경연 대회 등을 참관했다. 18일에는 무주군의 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고 오후 5시부터는 전북도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7 무주 WTF태권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세계 태권도인 한마당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원 내에서 농·특산물 시식 및 판매 부스와 무주투어를 위한 관광안내 부스를 운영했으며 15일부터(~17일)는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이 마련한 나눔 대축제가, 16일과 17일에는 무주반딧불야시장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문화관광과 박선옥 태권도 담당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엑스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했다"며 "태권도인들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무주, 태권도를 배우고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태권도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인식,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산 신품종 사과로 승부건다

'아리수' 조성사업 실시

진안군은 다양한 품종으로 공략해 오는 외국 과일과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국산 육성 신품종 아리수 사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사과 재배면적의 70% 정도는 후지라고 부르는 일본 품종이고, 다음으로 재배되는 품종이 국산 품종인 홍로이다. 홍로와 후지의 재배면적이 85%로 국내 사과 재배 품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지와 홍로가 우수한 품종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품종의 편중은 FTA 체결로 다양한 외국 과일의 수입과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 시켜줄 국내 육성 품종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아리수는 9월 상순에 수확되는 중생종 사과로 과일 모양과 맛이 좋고 병에 대한 저항성과 장기 저장성이 우수하여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진안 지역에 특화된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과 주산지가 기존 품종에 안주하고 있을 때 진안군은 장기적인 사과 산업을 염두에 두고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 생산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사과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 보급사업은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좁게는 전북 사과 발전 넓게는 한국 사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눔 대축제 성황

제2회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눔 대축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무주읍 남대천교 하부 천변에서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를 알리고 19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5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난타, 색소폰 우크렐레, 댄스, 장구, 밴드 등 8개 팀의 공연을 볼 수 있었던 "무주 생문동인의 밤"이 펼쳐져 여름밤에 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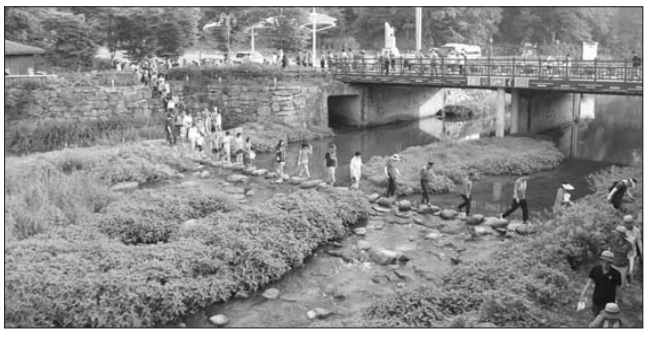
16일 열린 산골음악회에서는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함께 풍물과 창 등을 선보이며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17일 저녁 7시부터는 전북을 비롯한 경북, 경남, 충남 등 6개 지역 9개 팀이 참가하는 무주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이 펼쳐져 음악 색을 뽐냈다.

관광객 김 모 씨(대전, 52세)는 "무주에 놀러왔다가 덤을 얻은 기분"이라며 "한 여름 밤의 수상음악회라 더 운치가 있었고 먹거리 인심이 넘쳐나던 야시장도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며 토요일만 운영하던 무주반딧불 야시장도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맞아 16일과 17일 이틀간 개최했으며 부스도 18개에서 23개로 증설해 천마 빵을 비롯한 바나나 튀김, 가래떡 츄러스, 요거트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18일 진행

청량한 고원 여름밤의 걷기여행 '2016 진안고원길 달빛걷기'가 18일 달빛 아래 진행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달빛걷기는 진안만남쉼터를 출발해 진안천을 따라 용담호 생태습지원에 이르는 5.2km를 400명의 참가자가 함께 걷게 된다.

참가자들은 원연장마을 건강도시락과 진안에서 생산되는 생수, 시원한 막걸리 등 지역먹거리를 나누고, 모두의 희망을 담은 풍등과 한지 등을 띄우며, 소박하고 아름다운 달빛공연을 함께 하게 된다.

이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진안만남쉼터(진안읍 군하리 230-1)로 오후 6시30분까지 오면 되고, 현장 접수한 350명에 한해 건강도시락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걷기가 진행되는 진안고원길은 진안땅 곳곳의 마을과 사람, 문화를 잇는 도보문화여행길로 올해 하반기에 14개 전구간 210km가 이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내달 5일 고산에서 개막

무궁화 대표도시 완주군에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고산문화공원 내 무궁화 테마 식물원에서 개최한다.

무궁화 180여종을 보유하고 있는 완주 무궁화 테마식물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회 연속 지역축제 공모에 선정된 나라꽃 선양과 대중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무궁화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즉석게임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무궁화 식물원 투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가 열린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180여종의 무궁화 품종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축제기간동안 방문객에게 완주에서 생산한 2~3년생 무궁화 묘목 1,000본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 찰옥수수 본격 출하

당도가 높고 차진 '진안고원 찰옥수수'가 본격 출하된다.

진안군은 15일 한여름 밤 모깃불을 피워놓고 이웃과 함께 나눴던 추억의 대표 간식 찰옥수수를 본격 출하한다고 밝혔다.

옥수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는 물론 변비에도 좋은 영양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일교차가 큰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찰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차진 것이 특징이다.

올해 판매가격은 25개 1망에 10,000원이며 진안읍 진안고원시장은 물론 진안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해마다 진안에서 찰옥수수를 구입하는 조모씨(전주시 중화산동)는 "진안은 전주에서 가까워 이른 아침에 수확한 옥수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고원에서 재배해 쫄깃한 맛이 그만이다."고 말했다.

서영화 소장은 "진안고원의 큰 일교차로 자란 찰옥수수의 소비처를 확보하고 초당옥수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종자를 공급받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로컬플러스

무주 설천면 의류 나눔 바자회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면장 박희영)는 반디랜드 주말장터와 주민자치센터 내 상설판매장에서 의류 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1백 60여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설천면 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바자회에서 판매된 물품들은 서울 자바콜렉션(의류 제조·유통업) 김은정 대표로부터 기탁을 받은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 등산용 조끼, 등산용 바지, 가디건 등 의류 6백여 점으로,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기부 받은 물품 중 어린이용 티셔츠와 반바지 등 일부를 설천면 솔로몬지역아동센터와 설천어린이집에 전달했다.

무주군 설천면 김성옥 민원담당은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 장터를 펼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기부자에게도 모두 훈훈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민방위 재난대비훈련

장수군이 재난대비 훈련으로 주민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천천면사무소에서 민방위 재난대비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생활안전훈련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높이고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날 지역주민,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및 유관기관 등 1백여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의 긴밀한 공지체제하에 실전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화재발생에 따른 초동대응, 주민대피, 부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상훈 천천면장은 "이번 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지역주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휴가철 직행버스 운행

진안군은 15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 피서지인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전북고속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간 운행하게 된다.

노선은 전주에서 진안을 경유해 주천 운일암반일암까지 1일 6회, 왕복 운행하며 군내버스도 진안터미널↔운일암반일암 노선에 1일 14회를 운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전북고속에서 직행버스 노선개선으로 진안↔전주 운행버스에 대해 전주 고려병원 앞 정류소에서 하차를 시행해 전주를 왕래하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경찰, 여름파출소 개소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15일 운일암반일암 여름파출소 개소식을 갖고 8월 15일까지 31일간 여름파출소 운영에 들어갔다.

운일암반일암 여름파출소는 경찰관 3명을 포함, 지원중대 의경 6명을 지원받아 총 9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피서지 여성불안요소 제거, 4대악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수상안전사고 예방 근무를 실시한다.

박정근 서장은 "피서지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피서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청 등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피서지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진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